

서울주보

제2492호
2024년 3월 3일(나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사순 제3주일



성전에서 상인들을 몰아내는 그리스도

엘 그레코(El Greco, 1541-1614), 1570-1575년

캔버스에 유채, 116.8x149.9cm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 미술연구소, 미네소타, 미국

입당송 | 시편 25(24),15-16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제1독서 | 탈출 20,1-17<또는 20,1-3.7-8.12-17>

화답송 | 시편 19(18),8.9.10.11(◎ 요한 6,68ㄷ)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
네. ◎

제2독서 | 1코린 1,22-25

복음환호송 | 요한 3,16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 음 | 요한 2,13-25

영성체송 | 시편 84(83),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둉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 서울대교구장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에피소드입니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모두 등장합니다. 다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공생활 말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도 됨에 반해,(마태 21,12-13; 마르 11,15-17; 루카 19,45-48 참조) 요한복음에서는 당신의 공생활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갈릴래아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징이 일어난 직후에 이어지는 에피소드로 소개되고 있지요. 역사적으로 맞을지 간단히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그 안에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즈카르야서 14장 21절, “그날(곧 주님의 날)에는 만군의 주님의 집 안에 더 이상 장사꾼들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주님의 날’이 도래했음을 암시하고, 자신이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온 아들이심을 암시하십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이야기 직후에 이 사건을 배치함으로써, 물이 포도주로 대체되었듯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당신 몸으로 대체하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곧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새 계약의 ‘성전’으로 제시합니다. 사실 유배에서 귀환한 후 즈루뻬벨은 한 번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 성전을 헤로데 대왕이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중개축을

했는데, 입구와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구성된 그 성전에는 당시 신분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다 합니다.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 여인의 뜰, 이스라엘(남성들)의 뜰, 그리고 사제들의 뜰. 고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로부터 ‘하느님 현존의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사회적 계급과 권력의 자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여기에서 ‘다시 세우다’라는 동사는 뒤에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할 때 ‘되살아나다’라는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단위와 함께 예수님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한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넘어 ‘예수님의 몸’으로, ‘옛 계약(구약)’을 넘어 ‘새 계약’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넘어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곧 ‘하느님의 새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는 전환점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우리 안에 고착화 되어 있는 모든 편견과 계급적 사고, 그리고 세속적 가치 기준과 모든 종류의 차별을 타파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참사랑 안에 새롭게 우리 자신을 건설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 성전에서 상인들을 몰아내는 그리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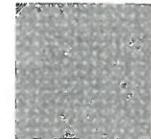
이 성화는 성경의 내용을 매우 역동적이고 화려한 색채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분노에 찬 희고 긴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그분의 붉은 옷과 파란 옷은 당신의 열정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 예수님을 중심으로 왼편 무리는 예수님의 분노에 놀라 전쟁터 같은 모습인 반면, 오른편의 제자들은 지극히 평온해 보입니다. 성전을 자신의 이익을 쟁기는 장소로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깊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카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최준익 막시모 | 가톨릭 찬양 사도

저는 찬양 사도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2010년은 제게 참 특별하고 소중한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신 해였던 것 같습니다. 늦은 나이에 전역해서 ‘어떻게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지?’라는 의문으로 가득 차 두렵기만 하던 때, 육군 훈련소에 근무하시던 신부님께서 저를 매주 있던 세례식과 주일 미사의 찬양 봉사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찬양 사도로서 저를 있게 한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만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좋아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훈련병들 앞에서 남자인 제가 혼자 성가 연습을 시키고 북상곡을 나눈다는 것. 지금 생각해 봐도 떨리는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훈련병들의 큰 성가 소리와 언제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떨림은 조금씩 큰 기쁨과 기다림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또한 북상곡 노랫말을 조그마한 수첩에 적어 와서 그 뜻을 물어보는 훈련병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다른 부대 성당으로 찬양을 갔을 때 “훈련병 때 형의 성가를 듣고 힘을 받고 용기를 내었어요.”라고 이야기해 주는 소중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부님께서 “성가를 알고 불러야 해.”라고 말씀하시며 신학 공부를 제안하셔서 가톨릭교리신학원에 입학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게다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서 공부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읽은 책과 강의의 내용들이 조금씩 귀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지혜를 배우는 기쁨과 나 자신이 많은 은총을 받고 있다는 깨달음에 행복한 시

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단지 멋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나 자신이 돋보이고 싶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노래’가 아닌 ‘찬양으로 노랫말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각에 미사 성가 봉사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뒤에서 허리가 굽으신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셔서 “감사합니다.”라며 두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체험들을 마음에 꼭 담아 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 사도로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흔히 찬양 사도의 삶은 ‘배고픈’ 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라는 의문을 ‘아!’라는 감탄사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찬양으로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지향

3월

새로운 순교자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와 선교 열정으로
온 교회를 불타오르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거부된 사람들’이

사는 집



우리는 종종 무언가에 ‘거부’ 당합니다. 그때마다 불쾌감에 언짢기도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잊고 지나가지요. 하지만 우리 사회 안에는 한 인간으로서 존재 자체가 거부되어 가족, 친구, 사회로부터 평생 외면당하고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존재가 거부된 사람들! ‘에이즈(HIV/AIDS) 환자(이하 감염인)’입니다.

감염인 명숙(가명) 씨가 입소하던 날, 병색이 완연한 그녀의 흉한 눈과 깅마른 몸에서 오랜 시간의 거리 생활이 눈에 보였습니다. 길 위에서 많은 것에 시달렸을 그녀에게 저는 “명숙 씨, ‘이곳이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말을 건넸고, 그제야 무표정하던 명숙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쓸 방을 보여주고 노숙의 여독을 씻어낼 목욕을 도울 때였습니다. 얼마 동안 길 위에서 살았는지 그 긴 세월만큼 씻김이 필요할 듯했습니다. 때가 빠지지 않는 머리를 반복해 감기며 이 나이 든 여성 감염인이 노숙에 들어간 이유가 짐작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된 이해는 외면과 차별을 낳으며 누군가의 딸이자 형제, 아내이자 엄마였던 병든 한 여성 풍찬노숙의 길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명숙 씨 자리를 화장실이 가까운 쪽으로 정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그녀는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며 폭풍 흡입을 했고, 사레가 걸려 화장실로 뛰어가 서너 차례 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식사 중 화장실로 뛰어가는 일이 며칠 더 이어지고 나니 명숙 씨 얼굴에도 혈색이 돌고 편안함이 찾아들었습니다. 가족, 사회적 관계에서 거부되었던 명숙 씨는 새빛공동체가 살만한지 자연인 최명숙으로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에이즈는 확진과 동시에 주변인들로부터 병세를 위로하는 그 흔한 걱정의 인사조차 소거시킵니다. 대신 거부와 외면, 차별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감염인들은 이렇게 거부된 삶을 살며 일찍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머리 누일 곳을 찾아 생면부지 사람들 속의 노숙, 쪽방, 고시원 등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감염인들이 인연이 되어 머리를 누이는 곳이 생활 쉼터인 저희 새빛공동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골롬반외방선교회의 수녀이자 새빛공동체의 책임자입니다. HIV 감염인과 AIDS(에이즈) 환자들만을 돌보는 새빛공동체는 1997년 본 수녀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에이즈 특성상 비공개로 운영하다 보니 정부는 물론 여타 기관의 도움이 어려워 수녀회의 지원과 소수 후원자의 후원만으로 꾸려갑니다. 에이즈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질환보다 건강 회복과 독한 약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균형 있는 음식, 따뜻한 거주가 중요합니다. 섭생을 위한 식비, 의료비, 청년 감염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비 그리고 쉼터로 이용하는 오래된 주택도 매년 공사비를 요구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까 매일 인간적 걱정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역시 평생 편하고 좋았던 순간이 없으셨던 일을 생각해 보면 오늘만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새빛 쉼터를 꾸려갑니다. 단순하게 ‘짠하다!’라는 말조차 못 듣는 에이즈를 지닌 이들이 사는 새빛에, 사랑의 손길을 건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24년 3월 2일~4월 5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새빛공동체’를 위해 씁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html/dh/spon_songil) – 사랑의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_ ① 인터넷 신청: www.caritasseoul.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27-22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들의 후계자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흔히 신자들이 변하기 위해서 먼저 신부들이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신부들은, 신부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교님들이 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입니다(주교님, 죄송합니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인데, 이 문헌에서 ‘교회의 중심은 하느님’이시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현존은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교회는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을 ‘지금 여기에!’ 드러내기에, 교회에 성사는 필수적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파견하셨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파견하셨으며, 성자는 제자들을 파견하셨습니다. ‘파견’(missio)이란 파견하신 분의 뜻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파견의 목적은 먼저 자신이 구원의 대상이 되고, 이후 세상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파견의 근거는 하느님과 맺은 ‘계약’입니다. 계약을 맺었기에 인간이 계약에 충실히라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교회는 ‘구원을 전달하는 도구이자 수단’(=성사),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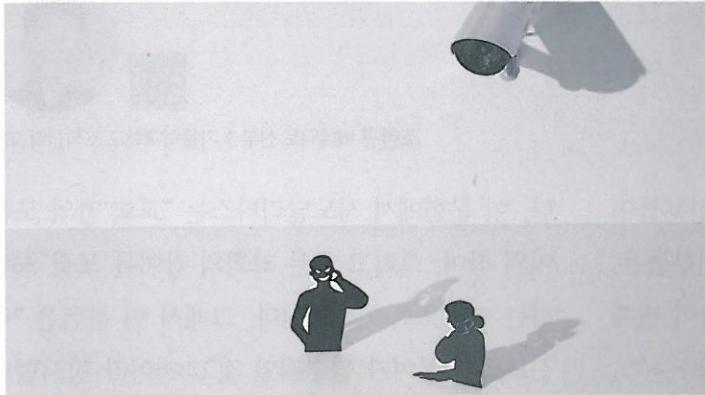
요즘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시노달리타스’입니다. 이 주제는 교황청 신앙교리성 산하 국제신학위원회에서 발간한 문헌인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2019)를 통해 제기됩니

다. 이 문헌에서 시노달리타스는 “교회 안의 모든 이의 참여, 그리고 모든 교회의 참여를 포괄”(66항) 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문헌은 “평신도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73항)이라 명시합니다. 동시에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과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목자들이 가진 고유한 다스림의 기능”(69항)을 언급하며, 공동 작업을 통해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과 사목적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구별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도성과 보편성의 보증인 주교의 권위에 속”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는 직무적 책임”(69항)임을 강조합니다. ‘시노달리타스’ 개념 안에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헌장> 10항, 즉 “기록된 하느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직무는 …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는 내용이 강조됩니다.

교도권을 이루는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특별히 뽑아 세운 사람들입니다. 주교는 목자(牧者)로서 교구를 책임지고 대표하며, 동시에 전체 가톨릭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주교는 하느님을 대신 해 양떼를 다스리는 목자가 되고, 교리를 가르치며, 거룩한 예배와 성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오직 주교만이 교회에 맡겨진 7개의 성사를 온전히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기에, 주교는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교들을 통하여 대사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 가운데에 계신다.”(<교회헌장> 21항)



연예인은 공인의 사생활 논란.



요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사생활 이슈가 많이 터졌어. 당사자로 지목되는 이들의 공통점은 우리나라에서 ‘공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지.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에 관계된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들에게는 큰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어. 하지만 언제부턴가 ‘유명인’에게도 공인으로서 책임감과 엄격한 사생활이 요구되고 있어. 이는 미디어 발달로 유명인의 말과 행동이 중요해졌고, 심지어 그들이 입는 옷에 따라 패션 트랜드가 생길 정도가 됐기 때문인 것 같아. 하지만 점점 이들의 ‘가족 관계’, ‘내밀한 사적 영역’ 등등 모든 사생활이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파헤쳐지고 있고, 공인들과 그 가족들은 때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이 공인 혹은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청소년주보
큐알(QR)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개인을 향한 ‘사회적 관심’은 두 가지 모두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선 공인에게 책임을 다하게 하여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 있죠.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때 그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십과 흥미 위주라면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언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일까요? 아니면, 관음증일까요?

- 서울대교구 정수용 이냐시오 신부님 -



바오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데, 난 사실 적어도 공인이라면 그들의 행동과 말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모든 언행 하나하나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미카엘

물론 도덕적으로 본인의 잘못이 있지만, 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생활 문제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번진 끝에, 자신의 가족들마저 사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마치 자유가 박탈당한 인간처럼 살아가는 느낌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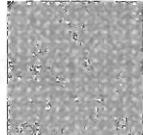
헬레나

난 공인의 사생활에 왜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특히 언론이, 알 필요가 없는 내용까지 공개하는 느낌이랄까? 과연 국민들의 알권리에 이들의 사생활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어.



스텔라

최근 어느 톱스타의 죽음을 보며, 한 사람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남은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뒤에 남겨놓은 그들의 가정과 사회에 대한 그들의 책임감을 생각하면 공인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말 죽음으로 물고가는 무언의 사회적 상황이 난 안타까워.



인간 본성



신승환 스테파노 |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교수

인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타고난 본성일까요, 아니면 그가 살아가는 시간과 장소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성격일까요? 철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본질과 실존으로 설명합니다. 본질은 사람을 사람에게 하는 본래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말이며, 실존이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특성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는 보편적이며 본질적인 원리가 있으며, 그에 근거한 개인적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본성을 그는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logos)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 차용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본래 이 말은 세계의 근본 원리이면서, 이성이나 언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본성을 로고스로 이해한 철학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 또는 언어를 지닌 존재입니다. 이성과 언어는 인간 본성이며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 짓는 차이 나는 특성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성과 언어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될 테지요. 사람이 사람이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그의 스승 플라톤의 철학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 세계를 ‘이데아’(Idea)와 ‘현실 세계’로 구분합니다. 이데아가 이상적이며 본질적인 세계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그를 반영한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이데아 세계는 낙원이지만 현실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하고 불평

등한 세계, 전쟁과 다툼이 일상이며 악과 종오가 흘러 넘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는 아름다움과 정의, 진리와 사랑이 함께하는 세계입니다. 인간도 그러하지요. 본성적으로는 진리와 선함을, 아름다움과 사랑을 추구 하지만 현실의 인간은 자주 그것을 배신합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인간이 이 현실 세계를 넘어, 원형적인 이데아 세계를 향해 가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철학은 이 원형적 세계를 향한 열정이며, 철학의 과제는 이러한 ‘그 이상의 세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헬레니즘 세계에 전파하고자 했던 초대 교부들에게 이 철학은 귀중한 토대가 됩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 나라와 그 원리를 추구하며, 신 앞에 서서 그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설명합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를 향한 열정을 북돋우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수련시키는 과정을 ‘파이데이아’(paideia)라고 합니다.흔히 교육이나 교양으로 번역하는 말이지요. 이 철학을 깊이 이해했던 교부 오리게네스에게 하느님은, 인간을 영원히 교육시켜 당신에게로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그런 분께 영원히 교육받는 존재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후 철학은 인간 본성을 해명하는 다양한 이론으로 발전합니다. 이성과 언어 외에도 삼위일체의 본성에 바탕을 둔 인격 개념, 진선미를 추구하는 인간, 정의와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는 본성 등은 이러한 이해가 발전한 다양한 철학입니다.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

세계청년대회는 조직위원회와 교구청, 청년, 서울대교구의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축제이자 주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재의 수요일(2월 14일)부터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전까지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13년 3월 6일 흥명철 루가 신부(39세)
- 1944년 3월 9일 이보환 요셉 신부(51세)
- 1954년 3월 5일 김인상 야고보 신부(61세)
- 1975년 3월 5일 황정수 요셉 신부(85세)
- 2016년 3월 7일 김병일 요셉 신부(82세)

교구청 알림

소방기관 가톨릭 신자 피정

문의: 02)727-2081, 010-6234-6910 직장사목팀
큰사랑봉사회 / 지도: 강혁준 신부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4년 전반기 강좌/문의: 02)727-2379

접수기간: 3월 11일(월)~25일(월) / 강의실 현장 접수
1) 명동 오전 정기강좌(정기강좌 및 나눔터학교)

때, 곳: 3월 11일~6월 17일 매주 월, 명동 교구청 내 강의실(15주 강의)
강의시간: 10시30분~12시30분

개강미사: 3월 11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 자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2) 청년(마르코 복음), 직장인(정기강좌 5권) 성서못자리

때: 3월 6일~6월 19일 매주(수) 19시30분~21시(15주 강의)

개강미사: 3월 6일 19시30분, 명동 소성당

수강료(교재자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3) 미주 온라인(zoom) 성서못자리 정기강좌(5권-동부

화요반·서부 목요반·3권-동부 화요반)

수강기간: 3월 5일~6월 13일(매주 1회 60분 강의 / 한 학기 15회 수업) / 회비: 8만원(수수료 포함)

4) 온라인 성서못자리('에드워드' 플랫폼 활용)

수강기간: 3월 4일~6월 30일 / 회비: 10만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청년 Hello 기도 2024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 (<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청년 Hello 기도 2024	다양한 주제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모임 매월 첫째주(화) 19시30분~21시 / 첫모임: 3월 5일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 대상: 청년 누구나 문의: 02)727-2031 박 스테파니아 수녀
---------------------------	---

명동대성당 상반기 견진신청 및 영성교육 프로그램

1) 주교좌 명동대성당 상반기 견진성사

신청대상: 세례성사와 첫영성체를 받은 20세 이상 신자
신청기간: 구비서류 치감 후 내방 접수(자세한 일정과 서류는 명동대성당 홈페이지-성당소식 참조)

교육일정: 4월 7일~5월 12일 13시30분~15시30분(5주간 / 5월 5일 휴강)

교리장소: 교구청 401호 / 조별나눔 교육관

견진성사: 5월 19일(일) 오후 2시, 대성전

문의: 02)774-1784 성당 사무실

2) 명동대성당 영성교육 프로그램

오르간	매주(목) 또는 (금) 10시~16시 개인강습연습	매월 15만원	010-8508-9354 담당: 강수민(문의: 요망)
전례 꽃꽂이	매주(금) 10시~12시 (고급班)	3개월 7만5천원 (세료비별도)	010-5302-4593 담당: 강사
수어	매주(목·금) 19시~21시 (교제비포함)	6개월 12만5천원 (교제비포함)	02)995-7394 에파타성당

3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3월 4일(월) 11시, 명동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집전: 기호배 신부(일본 선교 예정)

때, 곳: 3월 7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
(고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09

가톨릭 영유아(만5세 미만) 부모 교육

주제: 일상 속에서의 신앙교육

강사: 박종수 신부(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부국장)

때, 곳: 3월 13일(수) 오전 10시~12시30분, 영성센터 202호
(구 계성여고) & 온라인교육(ZOOM)-양방향 동시에 진행

신청: 2월 26일(월) 10시~3월 6일(수) 16시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문의(주최):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순교자현양 신심미사와 하루일정 전국순례

1) 순교자현양신심미사(333회)

때: 매월 첫째주(화) 3월 5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2)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때: 3월 16일(토), 3월 17일(일), 3월 26일(화)

곳: 남한산성, 단내성지

신청: 3월 4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5만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024 상반기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교육생 모집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는 손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혹은 예비 조부모)들이 '신앙의 전수자'로서 가톨릭 신앙을 올바로 전수할 수 있도록 돋는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대상 및 인원: 손자녀를 둔 50세 이상의 조부모 혹은 예비 조부모, 50명(선착순 마감)
곳: 영성센터 B203호(구 계성여고) / 회비: 과목당 8만원
교육내용: 변화된 양육 태도, 놀이 방법, 행동지도 방법, 긍정적 상호작용방법, 미디어 대신 책 읽기, 구체적인 신앙전수법 등 / 문의: 02)727-2385, 2386(선착순 접수로 초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과목 1 3월 24일(일)까지, 과목 2 4월 30일(화)까지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과목 1
유아발달 이해
4월 2일, 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4월 30일,
5월 7일 매주(화) 10시30분~12시30분(총 6회)

과목 2
신앙전수법
5월 14일, 5월 21일, 5월 28일, 6월 4일, 6월 11일, 6
월 18일 매주(화) 10시30분~12시30분(총 6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때, 곳: 3월 4일(월) 10시30분~11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2024 모세 오경 특강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 내용: 모세 오경(성경 칠참)

때, 곳: 3월 7일(목)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의: 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통독 아카데미

서울대교구 시니어카리타스합창단 단원 추가모집

대상: 성가대 경력이 있는 만 60세~75세

오디션: 3월 8일(금) 16시20분, 명동성당 범우관 702호

성가연습: 매월 첫째주~넷째주(금) 14시~16시30분

문의: 010-3323-3777 알토 및 베이스 단원만 모집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북녘 본당' 미사)

때, 곳: 1408차 미사 3월 5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용진 본당, 해주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아버지 여성

대상: 모든 연령대의 아버지

때: 4월 7일~28일 매주(일) 14시~17시(4주간)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회비: 5만원(3월 26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2 사목국 교육지원팀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갤러리1898 전시 및 공모전 안내 / 문의: 02)727-2336, 7

1) 갤러리1898 전시 안내

이효일 개인전: 1전시실

박찬희 개인전 '최양업 신부 일대기': 2, 3전시실

전시일정: 2월 28일(수)~3월 7일(목)

2) 2024 갤러리1898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안내

공모 주제: 성미술 관련 / 접수기간: 4월 11일(목)~18일(목)

자세한 내용은 굿뉴스 갤러리1898 공지사항 및

인스타그램(@gallery1898) 참조

인준단체 알림

모임

훈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때, 곳: 4월15일(월)~26일(금), 루르드·스페인·파티마
회비: 505만원 / 문의: 010-7374-3217

18양천지구 성령 피정 / 문의: 010-9074-6527
강의·미사: 김도영 신부(서울대교구)
때, 곳: 3월4일(월) 13시~16시30분, 양천성당

3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때: 3월21일(목) 19시30분 / 문의: 010-7197-1390
곳: 영성센터(명동) B401호 / 대상: 남녀 청년

글라렛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때, 곳: 3월10일(일) 11시~15시, 글라렛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회비 없음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11지구 역삼동성당 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0분(미사 19시), B1 경환당
(주차 가능) / 문의: 010-4667-3792 서 카타리나

3월8일 김현우 신부 3월15일 치유대피정

토이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3월5일 허보록 신부 3월10일 양종석 신부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 /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31)321-9054, 010-4154-0885

1박2일	3월16일~17일, 4월20일~21일
8박9일	6월23일~7월1일, 8월5일~13일
40일	6월20일~7월29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
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자연 피정

자연 순례	3월10일~12일, 3월16일~18일, 5월14일~16일, 6월22일~24일, 7월19일~21일, 7월25일~28일(우도)
성지	3월21일~24일, 4월2일~5일, 4월13일~16일, 4월25일~28일, 5월2일~5일, 5월8일~11일, 5월19일~22일

피아골·소록도 피정 / 문의: 010-3712-8119

소록도	4월5일~6일	피아골	6월22일~23일
부산교구	3월12일~14일	원주 춘천	4월12일~13일
홍성남 신부와 성지순례	고토나가사키 4월1일~5일		
	북해도 6월3일~7일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때: 3월25일~4월29일 매주(월) 9시30분~12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02)756-3473, 010-2759-3473

3월25일(월)	소개강의, 세속정신 끊음 1	김경희 수녀
4월1일(월)	세속정신 없애기 2	조용준 신부
4월8일(월)	자기 자신을 알기	박구식 신부
4월15일(월)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	이병근 신부
4월22일(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이계호 신부
4월29일(월)	봉헌의 생활화	박상희 신부

3월 '쉼' 침묵 피정(성령선교수녀회)

대상: 만40세 이하 미혼 여성 / 회비: 4만원
때, 곳: 3월8일(금) 20시~10일(일) 10시, 명륜동
문의: 010-2691-4895 (문자 접수)

군중후원회 사순 일일 피정 / 문의: 02)776-0457
때, 곳: 3월4일(월) 오전 9시30분, 국군중앙주교
좌성당(전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고개성지 내) / 특강: 신상옥(생활성가 가수)

골룸반 사순 청년 피정(성골룸반외방선교수녀회)

대상: 23세~39세 신자 / 접수: bit.ly/ColRetreat2403
때, 곳: 3월9일(토) 10시~17시, 성골룸반외방선
교수녀회 / 문의: 010-5033-9302 (문자)
3월6일까지 접수 / 회비: 1만원(현장 납부, 점심식사 포함)

2024년 DMZ 평화의 길

대상: 초3 이상 누구나(차수별 40명 선착순)
때, 곳: 3월15일(금)~17일(일)·4월26일(금)~28일
(일)·5월24일(금)~26일(일), 김포·파주·연천·철원
회비: 15만원 / 문의: 031)941-2766(www.pu2046.kr)
주최: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나의 눈은 소경입니다 영적소경을 고치는 방법은?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회비: 1만원
때, 곳: 매월 둘째주(토) 3월9일 14시~18시, 구산성지
천양: 고영민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전대사 은총과 함께 일일 피정

내용: 강의, 성체조배, 자기보기 훈련
때: 둘째주(일) 3월10일 10시~16시30분(9시 미사
참석 가능) /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곳: 스승예수제자수녀회(주최) 본원(서울 미아리)
회비: 3만원(선착순 50명 전화 접수)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 피정·3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
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1)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 피정

메주고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 안수(중식 무료)
때: 3월4일(월) 10시~16시

2) 3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때: 3월9일(토) 12시~17시30분 / 미사·안수, 중식 무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4월1일~3일·4월11일~13일·4월16일~18일·4월20일~22일·4월24일~26일·4월28일~5월1일(추자도)·5월2일~4일·5월6일~8일·5월17일~19일·5월22일~24일·5월26일~29일(추)·6월1일~3일·6월12일~14일·6월16일~18일·6월21일~23일·7월1일~4일(추)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띠나음악원(주최, 신촌)

생활성서사-사순 특강(역사서)

강사: 김영선 수녀 / 회비 없음
때, 곳: 3월21일(목) 14시, 까리따
스 여성 성서 교육관(전철 2·4호
선 사당역 1번 출구) / 문의(접수): 02)945-5985

수요 사순 특강·미사(도미니코 수도회)

때: 2월14일~3월20일 매주(수) 19시30분
곳: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문의: 010-5075-3513

가톨릭여성연합회 원어민 영어회화교실 모집
원어민 영어회화교실 초급반 추가 모집
때, 곳: 주1회 2시간, 가톨릭회관(명동) 513호
회비: 3개월 15만원(연회비 별도) / 문의: 02)778-7543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 문의: 02)753-8765

말씀: 조성풍 신부(명동대성당 주임)
주제: "사랑에 취하여라"(아가 5,1)
때, 곳: 3월10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2024년 교황청 꿈나무 캠프

때, 곳: 8월9일(금)~11일(일), 서산 웨이크업 국제
청소년센터 / 대상: 초등부 3~6학년 선착순 70명
회비: 15만원(교황청 어린이전교회 회원 별도)
문의: 02)2268-7103 / 홈페이지: www.pmsk.net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수업참여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수업내용: 검정고시·수능, 기타, 원어민영어회화,
토론·글쓰기, 사진, 한국사능력검정, 바리
스타, 코딩 등 / 봉사자모집: 검정고시(사회과목),
수능학습지도, 코딩수업 가능한 분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순교성지 새남터 기념성당 사순 특강·피정

곳: 순교성지 새남터 기념성당
1) 사순 특강: 13시~16시(15시 미사)
3월4일(월) 백남일 신부 3월11일(월) 윤홍민 신부
2) 사순 피정: 3월18일(월) 10시~16시
점심식사 제공, 파견미사
피정지도: 김영복 신부(분당 성요한 성당)
회비: 1만원 / 문의·피정접수: 070-8672-0327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반주장구	매주(목) 13시30분 / 회비 있음

서울대교구 가톨릭 다도회 봄학기 회원모집

다례와 전통예절 교육(인사동 교육장)
문의: 010-5246-9906, 010-3707-5712
화요반 3월19일부터 10시30분~12시30분(13주간)
목요반 3월21일부터 14시~16시(13주간)

예수회센터 봄학기 강좌

3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화	영성과 심리의 통합 네번째 길-예수님 의 파스카 그리고 새로 나는 삶	최지원 수녀
화	성경대학·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1 송봉모 신부	
수	그리스도인의 내적 돌봄	홍기령 교수
수	그리스도의 불편한 진실 7가지	김관희 신부
목	구약성경 아카데미-욥기 강독	주원준 박사

수원교회사연구소 신양선조 교리학교

내용: 신양선조의 중요교리(핵심정리 교리교육)
강의: 정 바오로 신부(연구소장)

때: 3월~7월 매주(일) 10시~10시50분(11시 미사)
곳: 구산성지 성당 / 문의: 010-8588-7177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추가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추가모집: 3월31일(일)까지 원서접수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나이 들, 새로운 소명—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그리스도 가치로 지나온 삶을 성찰, 새로운 소명 찾기 / 대상: 60세 이상 평신도(매회 8명)

때, 곳: 4월11일~5월11일(300만원)·6월3일~17일(150만원), 예수회 공동체(강원도 흥천)

계좌: 우리 1005-904-598156 한국예수회
facebook.com/groups/newvocation
문의(접수): 010-7451-9707 최대재 신부

모집

서초동성당 첼룸 챔버 오케스트라 / 문의: 010-7743-2302

대상(유급단원): 비올라(1명), 첼로(1명), 오보에(1명), 클라리넷(1명), 바순(1명), 호른(1명) / (일) 21시 미사

수아비스합창단 단원 모집

활동: 정기연주회(제9회), 성지 미사봉헌, 봉사
연습: 매주(월) 19시30분~21시30분, 공간음악(전 철 7호선 장승배기역) / 문의: 010-2295-9877

새남터성당 교종미사 성가단원 모집

순수 봉사 / 대상: 성가 봉헌할 남자 단원 모집
연습: 매주(일) 교종미사(11시) 전후 1시간씩(10시~13시) / 문의: 010-5470-6773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30대 가톨릭 신자 / www.logoschoir.org
활동: (일) 16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 010-3006-0810
오디션: 3월10일(일) 17시, 명동대성당
명동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란 참조(pc비전)

명동대성당 영어미사봉사단 선창자 모집

대상: (일) 오전 9시 영어미사 선창봉사 및 기본적인 영어회화가 가능한 청년 교우 / 문의: 010-6230-4451
4월5일(금)까지 이메일(mdemsv@naver.com) 접수
서류: 지원서(명동대성당 홈페이지-성당 소식-단체모집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PDF) / 면접 일정 추후 안내

미사

마리아사제운동 체니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3월9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3월6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안내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사랑샘'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배우자 사별에 한함)
때: 4월9일~5월28일 매주(화) 14시~17시(8회)
곳: 가락2동성당(주최) 임시성전(송파구 동남로 18길32, 4층) / 문의: 010-9637-1612 신 카타리나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사랑마루'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
때: 4월11일~5월30일 매주(목) 14시~17시(8회)
곳: 용산성당(주최, 용산구 효창원로15길 37)
3월24일(일)까지 접수 / 문의: 010-3182-7449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하늘의 문 성당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2024년 부활 평화마켓

청년작가들이 만든 핸드메이드 성물을 만날 수 있는 평화마켓에 초대합니다 판매금액의 일부는 청소년들에게 기부됩니다

때, 곳: 3월16일(토) 12시~18시, 청년문화공간 JU(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1층 카페
문의: 02)338-7832 청년문화공간JU

전진상 교육관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ijscen.or.kr)

인문학 산책- 주역과 삶의 지혜!	3월13일~5월29일 매주(수) 14시~16시(10회기)
내 영혼이 깃드는 집, 나의 몸(사순 피정)	3월22일 10시~17시 18시 명동성당 미사 봉헌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성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 되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사별, 부부, 영성상담 / 010-9146-7654
담당: 이찬 신부(콜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1급)

직원모집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조리사 모집

때: (월~금) 7시30분~14시30분 내 조율 가능, (토) 8시~13시30분(월1회) / 대상: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급여: 2024년 서울시 어르신 급식사업 조리사 인건비 기준(1,971,590원-세전) / 문의: 02)2658-6521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편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절두산순교성지 관리부 직원 모집

분야: 시설관리, 조경, 방호 업무 1명(계약직)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 / 이메일 문의

서류: 입사지원서(절두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 면접자는 개별 연락
3월17일(일)까지 이메일(jeoldusan@hanmail.net) 접수

신정3동성당 방호원 모집 / 문의: 02)2060-8051

대상: 신자로 시설관리, 방호, 영선, 미화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채용시까지
방문·우편(우 0805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7길 60-10) 및 이메일(leesy2205@seoul.catholic.kr) 접수

중림동약현성당 방호원 모집

분야: 방호원(계약직) 1명 / 대상: 세례받은 교우, 신체 건강하신 분으로 본당시설 관리·방호 미화 등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이메일 문의
3월15일까지 우편·방문(우 04506, 서울시 중구 청파로 447-1) 및 이메일(yak1891@catholic.or.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삼성산 성령 수녀회	수시	관악구 호암로 454-16(신림동)	010-3551-5877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매월 둘째주(일) 15시	수녀원	010-5604-1882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4월20일(토) / 시간은 개별 연락	공세리성당(대전교구)	010-4889-1830
성심수녀회	3월16일(토) 14시~17시	본원(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선교 수녀회	3월10일(일)~2025년 2월22일(토) 14시~16시(월2회)	본원(정릉)	010-3944-1375 지 크리스티나 수녀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3월9일(토) 13시	아프리카잡비아선교후원회(가톨릭회관 526호)	010-3679-7198 강파이 수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시	분원(보문동)	010-9353-1773 김 토마스 수녀
한국외방선교회	4월7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 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BOOK 신간****교황 베네딕토 16세
창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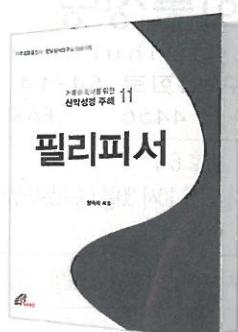
교황 베네딕토 16세 지음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151쪽 | 1만3천원
문의: 02)740-9718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1981년 초, 뮌헨 주교좌 성당에서 행한 네 번의 사순 특강을 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1980년대 당시 이미 교회 내에서 창조 신앙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 밖에서는 자연 과학적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전통적 창조 교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BOOK 신간****축복받은 성경 읽기
야고보 서간
베드로의 첫째·둘째 서간
요한의 서간과 유다 서간**

가톨릭 성서모임 역음
성서와 함께 | 52쪽 | 4천원
문의: 02)822-0125

성경 본문을 충실히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낱권 시리즈이다. 별다른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수록했고, 봉사자 없이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BOOK 신간****필리피서**

임숙희 지음
바오로말 | 180쪽 | 1만8천원
문의: 02)944-0944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경 주제'라는 부제에 맞갓게 이 책은 신자들이 필리피서에 담긴 메시지를 일상 삶 안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쉽고 간결한 문체로 주석하고 있다. 필리피서 본문 전체를 제시하고 각 장과 절마다 자세한 각주 외에도 참고 문헌과 성경 찾아보기를 실었다.

**CONCERT 공연****선교특총
사순 음악 피정**

참가비: 5천원(하나은행 286-910010-39104 재단법인천주교외방선교회) / 신청 문의: 온라인 및 문자(010-2730-3673)



신청 큐알(QR) 스캔

독특한 사회 활동과 교회 활동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들의 선교 체험을 들으며 김수연 바이올리ニ스트의 아름다운 선율도 함께 감상하는 사순 음악 피정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3월 22일(금) 19시 ~20시, 한국외방선교회 본부 대성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최종태 기증작품전 '영원을 담는 그릇'**

일시: 2월 15일(목)부터 상설전시
(9시30분~17시30분 / 월요일 휴관)
장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1 최종태 기증전시실
문의: 02)3147-2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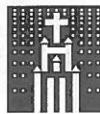
삶과 종교, 예술이라는 근원적 탐구 주제를 평생의 과제로 삼아온 최종태 작가는 157점의 엄선된 작품들을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

기증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박물관에 최종태 기증전시실이 마련되었다. 최종태 작가의 작품세계와 생애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기증작품전 <영원을 담는 그릇>을 통해 삶과 예술, 인간에 대한 성찰과 서로 간의 아우름을 사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운보 김기창 '예수의 생애' 판화 특별기획전
심연에서 만난 빛(The Light found in the abyss)**

일시: 2월 14일(수)~3월 30일(토)
장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2 기획전시실
기획소강당 / 문의: 02)3147-2407

한국화의 영역을 확장시킨 거장, 운보(雲甫) 김기창은 비록 귀가 들리지 않았으나 희망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술가였다. 이번 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억하고, 다가올 부활을 함께 기다리는 사순 시기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에 시작하여 성 토요일인 3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침묵의 심연에서 희망의 빛을 밝혀냈던 운보의 작품을 통해 빛이신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자(류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종)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흘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 본당 소속 단체 홍보

5월말까지 신입 단원 및 단체 봉사자 모집을 위한 홍보를 미사 시간 및 성당 마당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서출판 <성서와함께> 문서선교 일정 안내

<성서와함께>에서 신앙에 도움을 주는 도서와 성물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3월 2일(토)~3일(주일)

◎ 부활 집중 판공성사

일시 : 3월 21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성전 및 임시 고해실

※ 성사표는 각 구역 반장님을 통해 배부합니다.
기타구역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 동안의 모든 고해성사는
부활 판공성사로 인정됩니다.

◎ 십자가의 길

일시 : ~ 3월 22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미사 후
* 3월 29일(금) 오후 3시

◎ 청년 십자가의 길

일시 : ~ 3월 17일(주일)/매 주일 청년 미사 후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3월 3일(주일) 오전 11시 교종미사

◎ 유아세례 : 3월 3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연령회 미사 : 3월 5일(화) 오전 10시

◎ 바오로 시니어대학 개강 및 학생모집

개강 : 3월 8일(금) 오전 10시 미사 후

대상 : 65세 이상 교우 및 일반주민

강좌 : 백년을 살아보니 / 김형석 교수님

문의 : 세실리아 노년분과장 (010-2035-2581)

◎ 여성구반장회합 : 3월 10일(주일) 12시/소성전

◎ 청년 사순시기 성경 필사 중간모임

일시 : 3월 10일(주일) 청년 십자가의 길 후

대상 : 청년 누구나 / 장소 : 지하식당

◎ 아치에스 행사

일시 : 3월 17일(주일) 오후 1시 / 대성전

◎ 남성형제 안산자락길 걷기

일시 : 3월 23일(토) 11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마당에서 인원 점검 후 출발

대상 : 본당 모든 남성 교우

*행사 후 뒤풀이 친교 모임

문의 : 요아킴 총구역장 (010-4913-1158)

◎ 청년 봄 피정

일시 : 4월 27일(토)~28일(주일)

대상 : 청년 누구나

장소 : 복자사랑 피정의 집

신청기간 : ~ 3월 31일(주일)

참가비 : 45,000원 / 카카오 7979-88-91578

문의 : 비아 연합회장 (010-2550-2375)



◎ 한푸름 청년성가대 단원 모집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모임 : 매 주일 오후 4시 / 301호

문의 : 실비아 단장 (010-6588-2236)

◎ 청년배움터바오로 69기 새내기 모집

대상 : 만 40세 이하 청년 누구나

모집 : ~ 3월 16일(토)

여는마당 : 3월 17일(주일) 오후 3시 / 304호

문의 : 큰일꾼 이사벨라 (010-2107-3054)



◎ 성서 백주간 그룹원 모집

성경을 3년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누구나 신청하면 됩니다.

시작 : 4월 5일(금) 오전 10시미사 후

문의 : 안정란 알레스 봉사자 (010-8312-2198)

◎ 군입대 자녀 부활 선물은 3월 24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2. 25)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2,023	559 (27.6%)	506 (25%)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감사현금 (2월 19일~25일)

곽선모 오천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흥동수 일십만원

장철호 일십만원 오하나 삼십만원

김옥녀 오만원 신옥분 삼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